

중소제조업체 PL보험 무방비

〈 특정지역 사례 〉

시행 2년7개월째 가입은 1%안팎에 그쳐 제조물책임 (PL)법이 시행된 지 2년7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있었으나 특정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PL보험 가입률이 1% 안팎에 머물러 기업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상시종업원 5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 1만2천 854개사 가운데 PL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가입률이 1%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.

PL사고는 대형화 집단화 고액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 기업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집단소송이나 고액 PL사고발생 때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. 제품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제조업자가 보상하는 제조물책임법 관련 사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PL보험 가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 위해 정보 접수건수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91건에 달하며 안전사고 50%를 차지하고 있어 PL사고 건수가 늘고 규모 또한 대형화하는

추세다.

또 가입 건수 대비 사고접수율도 2002년 6.1%에서 2003년에는 14.5%로 급증했으며, 2004년 2504건으로 매년 5%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 유통업체의 경우 가입률이 전체 제조 유통업체의 1.4%에 그쳤다.

PL법이 시행된 2002년 7월 이전에는 제품으로 인한 피해내용을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행 이후엔 피해 가능성만 있어도 배상받을 수 있다.

반면 기업은 제품의 설계, 제조, 판매, 폐기의 전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돼 있어 위험도가 광범위하다.

따라서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사고가 나면 자칫 기업의 이미지실추 및 과도한 배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.

특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 등의 가입을 꺼리고 있어 피해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.